

한·일 양국의 기업생산성 비교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17. 5. 25

한국경영학회
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한상만 교수 (성균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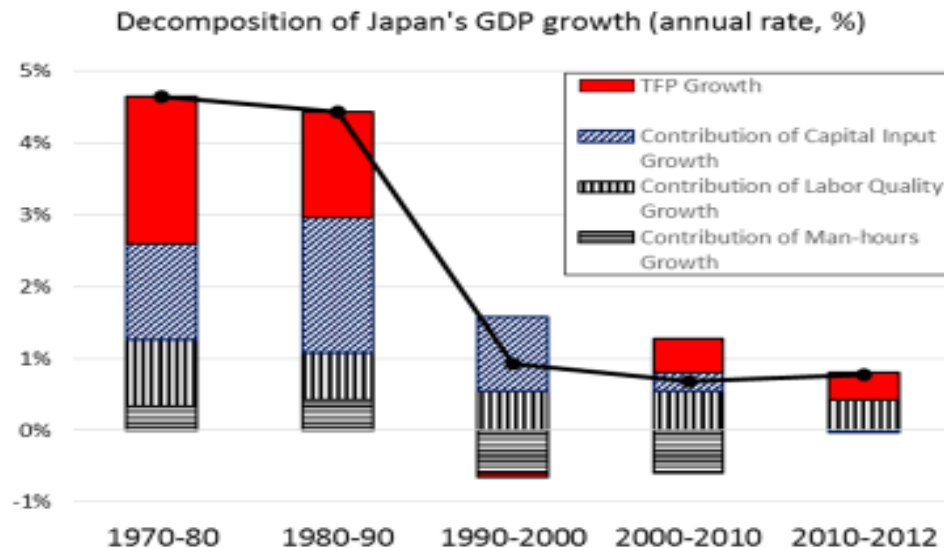
1. 한국의 기업경쟁력 ISSUE

- 지난 20년간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시장 추격형 기업의 경쟁력인 품질대비 가격우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
- 특히,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화학산업 등의 제조업에서 한국기업들은 일본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따라잡고 더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지위를 획득함.
- 그러나, 2010년 이후 한국기업들의 품질대비 가격우위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기업들에 의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대체되어가고 있음.
- 한국기업들의 경쟁력 위기감은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의 전철을 밟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인함.

2. 일본경제의 장기저성장과 일본의 기업생산성

- 일본경제의 GDP growth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의 growth가 기여하는 비중이 9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
- 생산성의 저하는 기업들의 경쟁력감소를 의미하며,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어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라는 부정적 순환고리를 통해서 장기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음.

<Fig. 1> Overview of Japanese Economy



Source: JIP database 2015

Lost Decades of Japan

3. 일본의 기업생산성 감소의 원인 - 내부효과

- 중소기업들의 경쟁력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생산성이 하락하였음.
- 중소기업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대기업들과 같이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특히 장기저성장의 경제환경에서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R&D에 대한 투자규모가 더욱 줄어들게 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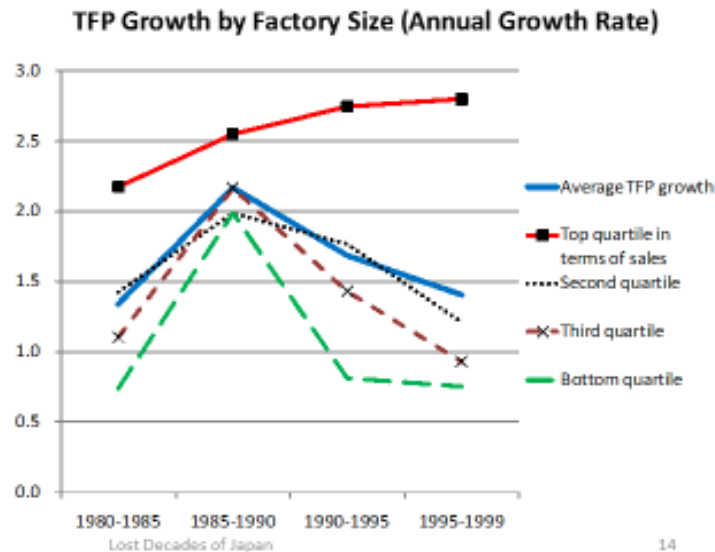
<Fig. 3> 내부효과는 왜 저하되었는가?

- 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대규모사업소의 생산성성장은 오히려 가속
- 중소기업의 침체



(a) R&D와
국제화에서
중소기업의 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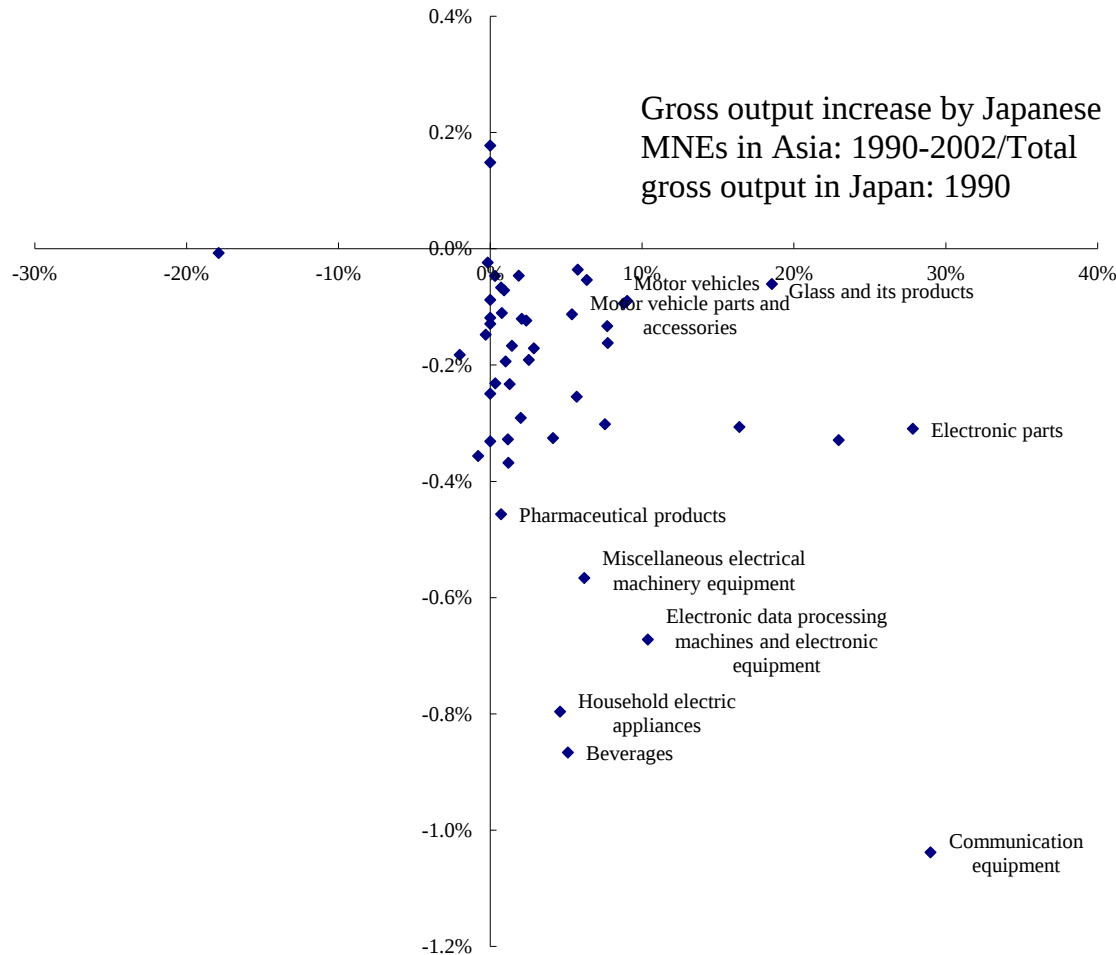
(b) 기술/지식의
spillover (전파)
효과의 약화



3. 일본의 기업생산성 감소의 원인- 퇴출효과

Overseas Production and the Exit Effect at Home

Exit effect: 199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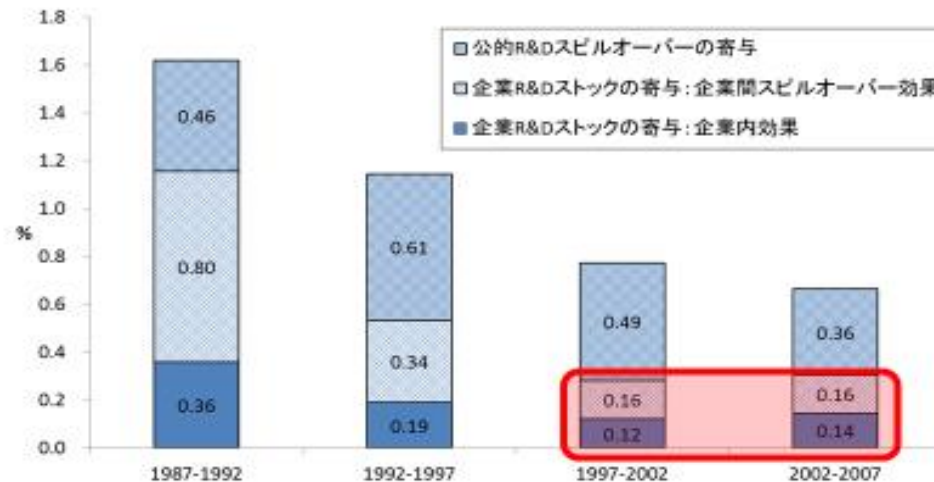
- 일본의 다국적 기업의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

→생산성 높은 사업소/기업의 폐쇄
→산업 생산성 성장의 저하

4. 일본의 기업생산성과 혁신 – R&D혁신의 감소

-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한 R&D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공적 R&D의 기여도, 기업간 R&D Spill-over 효과 그리고 기업 내 R&D의 효과중에서 199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바로 기업간 R&D Spill-over효과임.
- 기업간의 R&D Spill-over효과가 0.80에서 0.34, 0.16으로 감소하였음.

<Fig. 4> <Decomposition of TFP growth
(manufacturing sector, annual, %)>



Source: 池内他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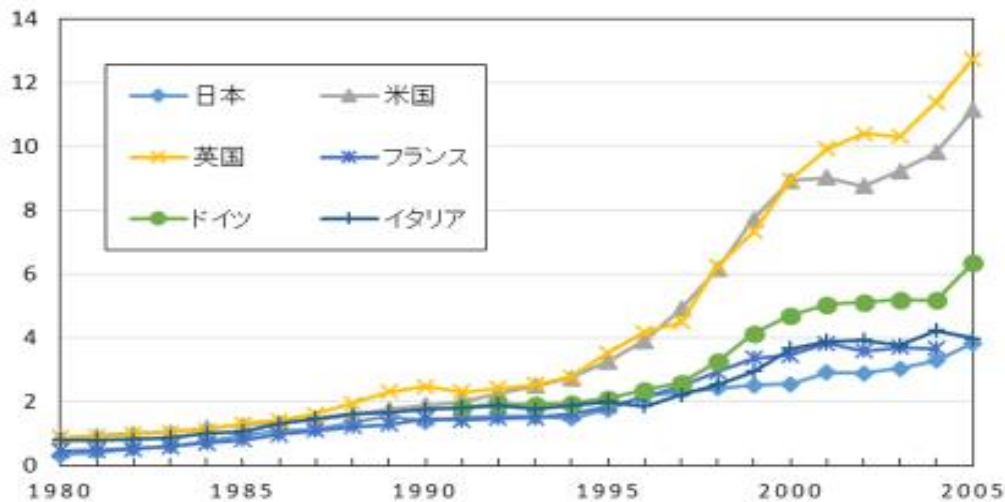
Lost Decades of Japan

16

4. 일본의 기업생산성과 혁신 – 프로세스 혁신의 저하

- 일본 기업들은 ICT에 대한 투자에서 미국기업들에 비해서 뒤쳐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경쟁력 혁신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음.
-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투자여력과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ICT 투자에서 완전히 뒤쳐지게 되었고, 이는 다시 전체 산업 생태계의 기업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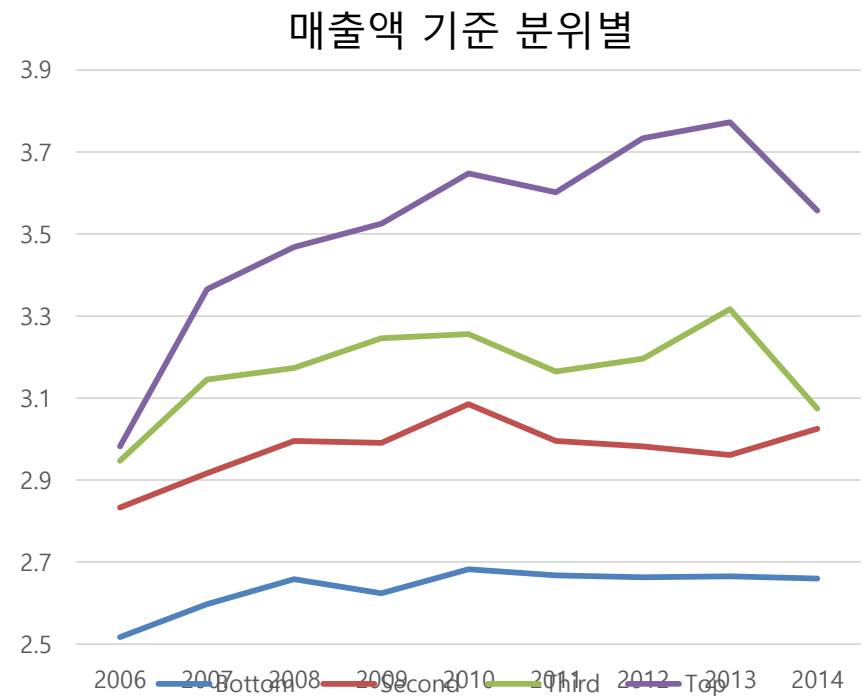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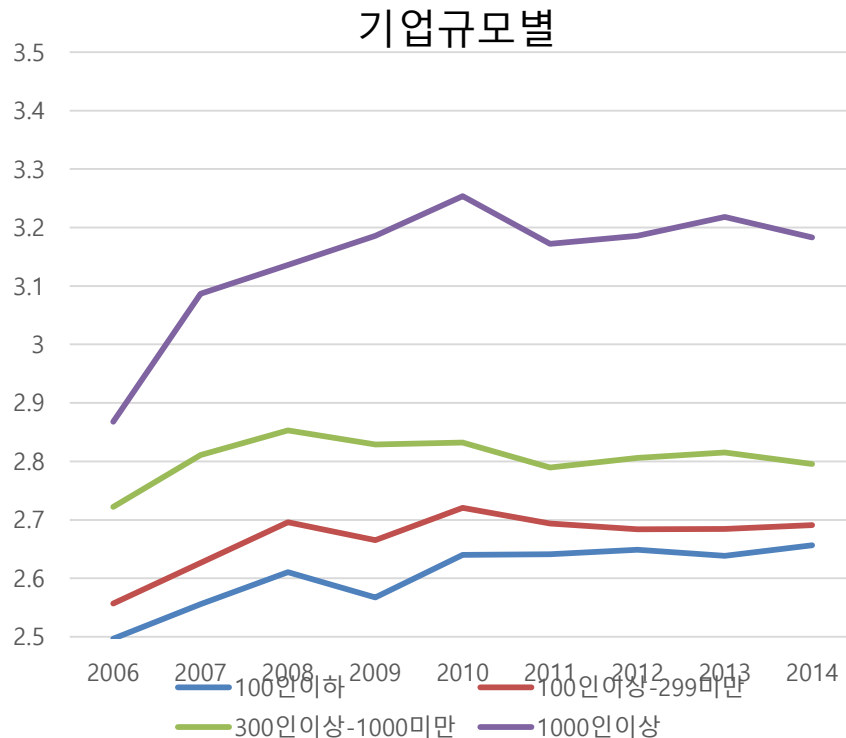
<Fig. 5> ICT investment / GDP (%)



出所: Fukao, Miyagawa, Pyo and Rhee (2009)、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JIP Database 2008, KIP Database

5. 한국의 기업생산성은 일본을 따라 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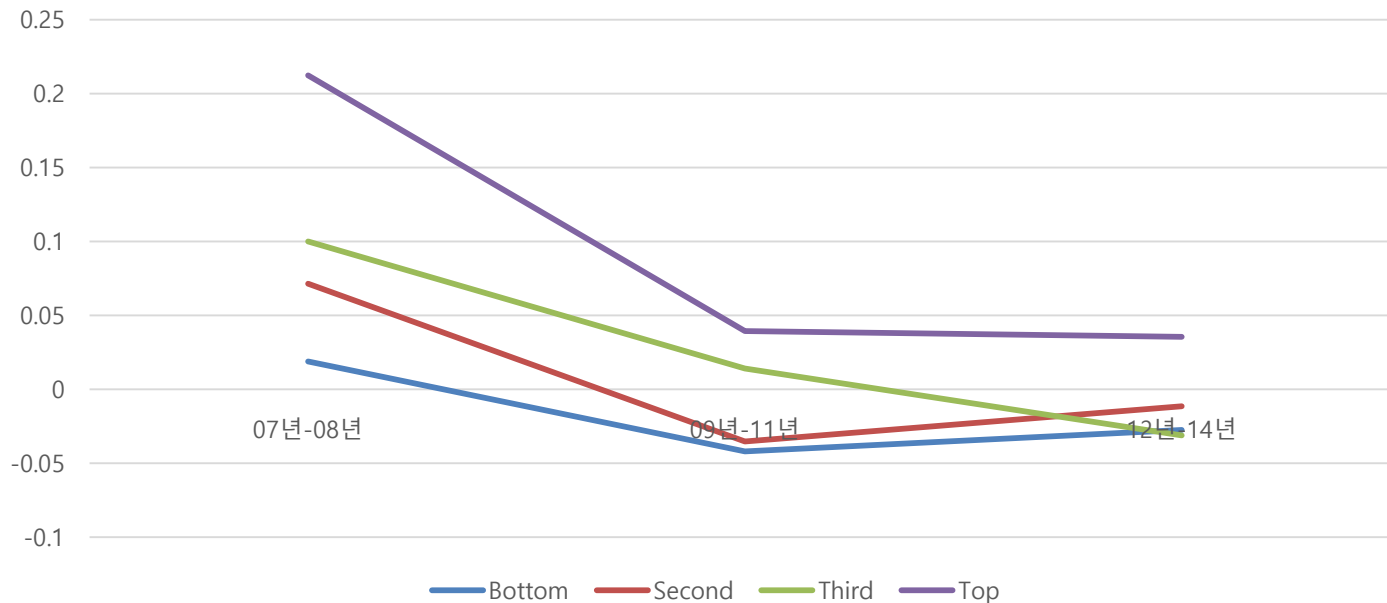
한국 기업 TFP -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기업 규모 및 매출액 기준 분위별에 따른 총 요소 생산성의 격차가 2006년에 비해 더 커짐.
- 이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경쟁력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

5. 한국의 기업생산성은 일본을 따라 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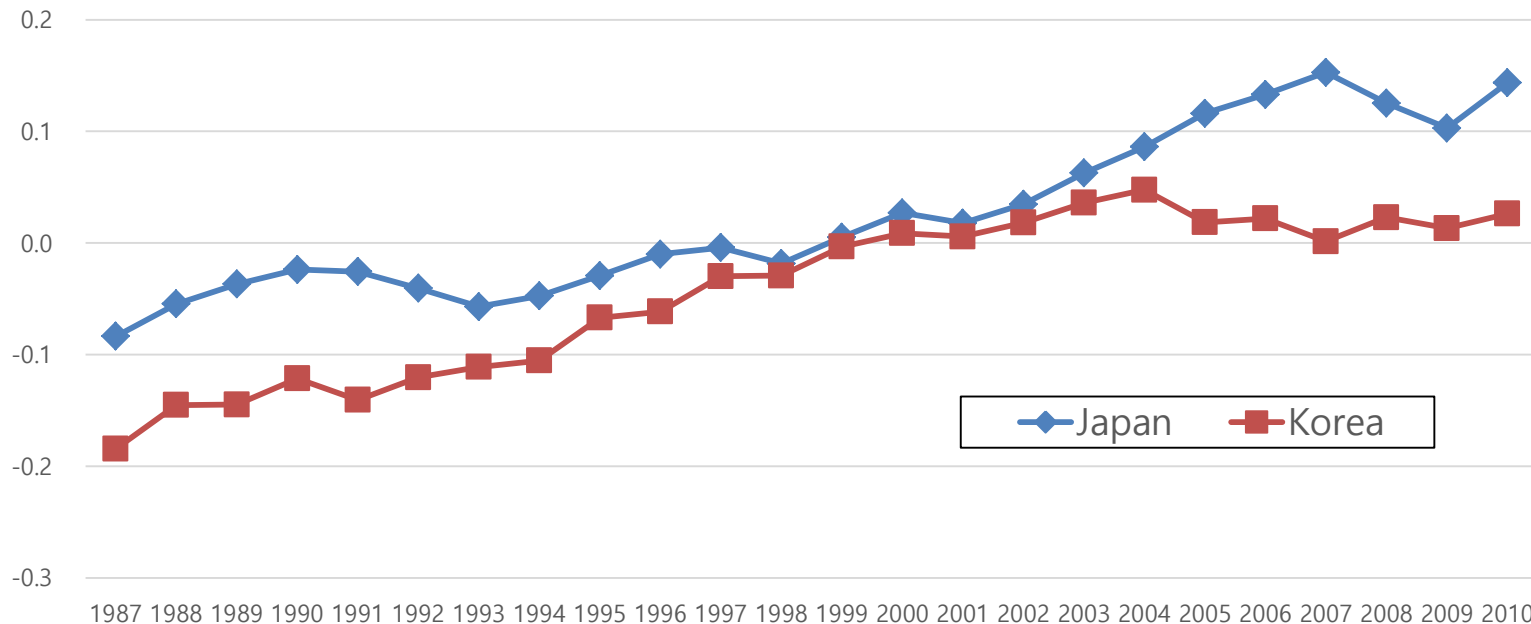
한국 기업 TFP 성장률 - 제조업, 매출액 기준분위별



- 한국의 경우, 모든 기업들의 TFP 성장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12-14년 동안 1000인 미만의 모든 제조업기업들의 TF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함.
- 특히,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TFP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임.

5. 한국의 기업생산성은 일본을 따라 가는가?

- 한일 양국의 상장기업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장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기업의 생산성을 추격하나, 2004년 이후는 추격의 속도가 현저히 저하됨.
- 한국의 경우, 대기업들의 TFP성장률이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다시 벌어짐.



6. 결론

일본의 경우 기업생산성이 감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임.

첫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업간 R&D Spill-over효과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이는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해서 기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되어서 일어남.

두 번째는 기업의 업무Process의 혁신을 위한 ICT투자에 있어서 일본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졌기 때문임. 이러한 ICT투자의 감소는 고용의 경직성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ICT투자에 필요한 투자와 인적 교육훈련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로 제기됨.

6. 결론

한국의 경우, 대기업들의 TFP성장률이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서 일본의 대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기업들과의 생산성 격차도 2004년 이후 다시 벌어지고 있어서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함.

일본의 기업생산성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난 두 가지의 요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한 중소기업의 R&D경쟁력 제고와 (2) 기업의 Process혁신을 위한 ICT경쟁력 제고가 기업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삼아서 한국의 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요구됨.